



# 황규연 백두 꽃가마 “얼마만이나”

# 오초아, 6개월만에 우승 도전

# 베텔 시즌 3승째

F1 일본 그랑프리 우승

## 추석장사씨름, 이태현 꺾고 3년여만에 백두장사 등극

‘모래판의 귀공자’ 황규연(34·현대상호증권·사진)이 3년여의 기다림 끝에 백두장사에 다시 올랐다.

황규연은 4일 진주체육관에서 열린 2009 추석장사씨름대회 마지막 백두급(무제한급)에서 지난 해 천하장사 윤정수(수원시청)를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뒤 모래판의 황태자 이태현(구미시청)마저 3-1로 꺾고 꽃가마를 탔다.

2000년대 초반 130~140kg을 오가는 가벼운 체중이지만 화려한 기술 씬름으로 모래판의 강자로 군림해온 황규연은 이후 잦은 부상으로 제 실력을 찾지 못해 그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30세가 넘는 선수들이 차례로 은퇴하거나 종합격투기로 옮기는 가운데서도 모

래판을 지킨 황규연은 20대 선수들과 맞붙어 전혀 뒤지지 않는 스피드와 기술로 다시 주목을 끌었다. 준결승에서 스피드를 이용한 잡채기로 최강자 윤정수를 2-0으로 가볍게 제압한 황규연은 종합격투기로 갔다가 지난해 12월 복귀를 선언한 이태현과 만났다.

“옛날에 워낙 자주 대결해 특별한 작전이 필요 없었다”는 황규연은 첫째판에서 밀어치기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태현도 둘째판을 잡채기로 따내 만회했지만 기술을 걸면 재빠르게 빠져나가는 황규연을 잡지 못했다.

황규연은 둘째판을 시도한 이태현의 공격을 피해 잡채기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나머지 두판을 모두 따내 진주체육관에 온집한 7천명의 씨름팬들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태현도 모래판 복귀 후 10개월만에 정상을 노렸지만 긴장한 탓인지 전성기 때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황규연은 “씨름이 체중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오랜만에 이태현과 맞붙어 씨름팬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킨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백두장사 결정전 순위 ▲장사 = 황규연(현대상호증권) ▲1품 = 이태현(구미시청) ▲2품 = 윤정수(수원시청) ▲3품 = 유승록(영인맥육살) /연합뉴스

## 나비스타 LPGA 클래식 3R

## 오지영 공동 5위, 위성미 13위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미국 여자프로골프 투어 나비스타 LPGA 클래식 셋째날 단독 선두에 오르며 오랜만에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오초아는 4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 RJT골프클럽(파72·6천54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골라내며 종합합계 16언더파 200타를 적어냈다.

2위 산드라 갈(독일·13언더파 203타)을 3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나선 오초아는 11개 대회만에 우승을 추가할 기회를 잡았다.

세계랭킹 1위 오초아는 시즌 초반 2승을 올렸지만 이후 우승컵을 수확하지 못해 여제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전날까지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7위에 있던 위성미(20·나이지리아)는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3개를 적어내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최해정(25) 등과 함께 공동 13위(8언더파 208타)로 떨어졌다.

오지영(21·마벨레스)이 하루동안 7타를



줄이며 공동 5위(11언더파 205타)로 도약했지만 5타차로 벌어진 오초아와 격차가 다소 부담스럽다.

역시 전날까지 상위권에 있었던 박인비(21·SK텔레콤)는 1타를 잃어버려 최나연(22·SK텔레콤) 등과 공동 18위(7언더파 209타)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세바스티안 베텔(독일·레드불)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일본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

베텔은 4일 일본 스즈카에서 열린 2009 시즌 15라운드 레이스에서 5.807km의 서킷 53바퀴(총길이 307.573km)를 1시간28분20초443에 돌아 이번 시즌 세 번째 정상에 올랐다. 2위로 들어온 아르노 트롤리(이탈리아·도요타)를 4.877초 차로 제친 베텔은 드라이버 부문에서 69점이 돼 2위 루벤스 바리첼로(브라질·브라온GP)를 2점 차로 바짝 쫓았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레이스만 남은 가운데 드라이버 부문에서는 젠슨 버튼(영국·브라운GP)이 85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남은 두 차례 경기 결과 버튼과 바리첼로, 베텔까지 세 명만 시즌 챔피언 가능성을 남겼다. /연합뉴스

## 한국 남자배구 10일 완패

조선선수 이란과 4강전

한국이 제15회 아시아 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 일본에 분패했다.

차상현 감독대행이 이끄는 남자배구 대표팀은 3일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 경기장에서 열린 8강 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일본에 0-3(28-30 22-25 23-25)으로 졌다.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지만 내내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에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한국은 매 세트 초반 근소한 리드를 잡고 도해결사가 없어 일본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하다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김요한이 홀로 26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세트에서 실책이 13개나 나왔고 수비 성공률이 28%에 그쳐 일본의 시미즈에게 22점이나 허용했다.

일본에 져 8강 F조 2위에 머문 한국은 카자흐스탄을 3-1(24-26 25-21 25-21 25-23)로 꺾고 조 1위로 올라선 이란과 4일 4강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 ‘연장 혈투’ 송보배 우승

## 일본 여자오픈 메이저대회

## 태극낭자 올 리서 7승 수확

송보배(23)가 일본여자프로골프 메이저대회 일본여자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송보배는 4일 일본 지바현 아비코 골프장(파72.6천559야드)에서 열린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 일본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함께 11언더파 277타로 요코미네 사쿠라(일본)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 끝에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고교시절인 2003년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프로로 전향했던 송보배는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상(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2006년 캘리포니아를 거쳐 일본 무대의 문을 두드린 송보배는 지난해 다이킨 오픈 레이디스에서 우승한 이후 생애 두번째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올리며 삼금 2천800만엔도 받았다. 지난 해에는 이치호(30·진로캐번)가 이 대회에서 우승해 일본 최고 권위의 메이저대회에서 2년 연속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기록을 남겼다.

송보배의 우승으로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은 일본에서 7승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승한 뒤 프로로 전향했던 송보배는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상(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2006년 캘리포니아를 거쳐 일본 무대의 문을 두드린 송보배는 지난해 다이킨 오픈 레이디스에서 우승한 이후 생애 두번째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올리며 삼금 2천800만엔도 받았다. 지난 해에는 이치호(30·진로캐번)가 이 대회에서 우승해 일본 최고 권위의 메이저대회에서 2년 연속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기록을 남겼다.

송보배의 우승으로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은 일본에서 7승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2009 WK 리그(충남일화 : 부산상무) (18 : 50·KBS n스포츠)  
2009 AVC 남자배구 결승전(19 : 00·MBC ESPN)  
6일(화)  
09/10 프리미어리그(아스톤빌라 : 맨체스터 시티)(03 : 50·SBS스포츠)



## “반갑다 프로농구”

4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09-2010 프로농구 시범경기 서울 삼성-원주 동부 경기. 동부 표영일이 삼성 차재영의 수비벽을 앞에 두고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셔틀콧 전 종목 우승

한국이 2009 싱가포르 셔틀콧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3일 오후(한국시간) 싱가포르 이오추강 스포츠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결승에서 이재진(밀양시청)과 김진욱(KT&G)이 각각 2관왕에 오르는 등 5개 종목 1위 자리를 독차지했다.

이재진-김진욱 조는 혼합복식 결승에서

허훈희(밀양시청)-정경은(KT&G) 조를 2-0(21-19 21-11)으로 눌렀다.

이재진은 허훈희와 짝을 이룬 남자 복식 결승에서도 개최국 싱가포르의 트리아치트 차우-크리스난타 데니 바와 조에 2-1(20-22 21-18 21-16)로 역전승을 거뒀고, 김진욱은 정경은과 호흡을 맞춘 여자 복식에서 역시 싱가포르의 야오 레이-사리 신타 몰리야 조

## 싱가포르 배드민턴선수권

이재진·김재욱 각각 2관왕

를 제패해 점전 끝에 2-1(22-20 18-21 22-20)로 눌러 각각 2관왕이 됐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손승모(밀양시청)가 아드난 파우지(인도네시아)를 2-0(21-9 21-12)으로 완파했고, 팀 동료끼리 우승을 다툰 여자 단식에서는 배연주가 배승희(이상 KT&G)에 2-0(21-15 21-14)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5일(월)  
2009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야쿠르트)(17 : 50·SBS스포츠)

**첨단OK공인중개사 김병준**  
T.971-0150 H.011-633-5592  
(첨단지구 생활호수공원 옆 모아아파트상가 105호)

**▶ 수완지구 대지**  
-상업용지: 753㎡  
-매 가: 6억 8,400만

**▶ 첨단지구 대지**  
-상업용지: 435㎡  
-매매가: 3억 5,000만  
-금매 (3.3㎡당 270만원)  
-공시가격보다 저렴(롯데슈퍼 인근)  
-상업용지: 380㎡, 매매가: 4억4천 330만원  
-3.3㎡당 350만원 (엘파호텔 인근)  
-상업용지: 280㎡,  
-매매가: 2억5,200만원 (3.3㎡당 300만원)

**▶ 자연녹지 매매**  
-임대: 4,620㎡(1400py)  
-매매가: 45억, 용자: 17억

**▶ 투자빌딩 매매**  
-대지: 1,891㎡, 건물: 3,412㎡  
-매매: 45억, 용자: 17억  
-보증금: 14억, 월세: 2천만원  
-대지: 463㎡, 건물: 1,829㎡  
-매매: 15억3천만, 용자: 7억5천만  
-보증금: 1억1천만  
-월세: 7백20만원(공실없음)

www.gcity.co.kr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 물건**

**시세보다 저렴한 농지**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오의리 축사(토사: (대지) 29평 축사동 710평)  
-감정가 3억2천만, 매매가 8500만, 주택유류 및 대지(농산물) 4개 등  
-지목: 목장용지, 임종지 등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2차선포장도로 근접

▶ 광주 북구 대평동 영랑공원 부근, 대지 216㎡(665평), 건 125㎡ (38평) 매매가 3700만  
-비밀매점 전임 중음

**저렴하면서 가치있는 임야**

▶ 전남 화순 아전면 초봉리 임야 104,727㎡(32,000평) : m당 2천원  
-관내역 임야 포화, 계곡 및 자생지, 전 두 상수부, 목장용지 가능

◆ 필요하면 각종 토지를 용도에 맞춰 최선을 대해 구매드립니다.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특 지**

▶ 담양 창평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 남평읍(중흥스파인구) 16,810㎡ 매 4억5천  
▶ 북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 광안구 요기동 담 3,000㎡ 매 1억3천  
▶ 무안군 일로읍(계획관리지역) 담 2,437㎡  
▶ 무안군 온남면 권리지역(해변가) 전 23,600㎡  
▶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가건물**

▶ 용봉동(2층) 매 1억8천(보 5천/월 80)  
▶ 오치동(6층) 매 17억(보 2억/월 1천2백)  
▶ 고시동(5층) 매 8억5천(보 7천/월 2백)  
▶ 용봉동(3층) 매 4억(보 1천/월 2백)

**식당**

▶ 월출산 인근 가든식당 7,685㎡ 매 7억5천  
▶ 펜션 부지취적

▶ (담양, 창평 성업중인) 대 690㎡ (매 1억5천) 대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권 원룸부지, 담양인근구인원룸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해령법률경매**  
T: 062)430-7117 H.P: 011-629-0827 위치: 법원정묘앞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

**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

**토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

**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

**토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

**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

**토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적(㎡)	건종	최저가
광안구	남평면	424/138	744㎡	2층	7억
광안구	광안면	284/157	284㎡	1층	7억
광안구	대평동	1243/272	191㎡	1층	6억